

Not Rated

진영 (285800)

본업 회복 & 신사업 가시화 기대감

김용호

yhkim@fsresearch.net

현재 주가 (11/9)	3,905원
시가총액	682억원
발행주식수	17,477천주
52 주 최고가 / 최저가	8,800 / 3,520원
60 일 일평균 거래대금	71.3억원
외국인 지분율	0.9%

주주 구성

심영수 (외 8 인)	61.9%
우리사주	1.9%
자사주	0.0%

상장일 기준 의무보유확약

6개월	주식수	117,378주
-----	-----	----------

주요 재무 & 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십억원)	24.0	35.3	59.3	48.1
영업이익 (십억원)	1.8	1.9	7.0	6.4
영업이익률 (%)	7.5	5.5	11.9	13.4
순이익 (십억원)	0.5	1.5	5.9	5.1
순이익률 (%)	2.1	4.2	9.9	10.6
EPS (원)	7,226	20,953	836	405
PER (배)	n/a	n/a	n/a	n/a
PBR (배)	n/a	n/a	n/a	n/a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

주가 추이



- 국내 주요 가구업체를 고객사로 확보, ASA 시장 확대 시 동사에 수혜
- 반도체 대전방지 필름 신사업 가시화 기대, 높은 수익성으로 전사 이익 견인 예상
- 현재 주가는 공모가 하회, 실적 반등과 신사업 가시화 시 탄력적 주가 반등 기대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업체

동사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업체로 가구 등의 표면 마감재를 제조한다. 주요 제품은 가구용 sheet, 가구용 edge, 산업용 마감재로 나뉜다. 매출액 비중은 sheet가 72.3%, edge가 19.8%, 산업용 마감재 7.1%로 구분된다. 동사는 LG화학과 공동개발한 ASA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통해 가구용 시장 내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ASA 소재는 외장재로 개발되어 현재 국내 시장 주류인 PET 제품 대비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내후성이 우수하고, 물성 및 외관 변화가 적다는 특징점을 보유한다. 한샘,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아직 ASA 소재 시장내 경쟁사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 확대는 곧 동사의 외형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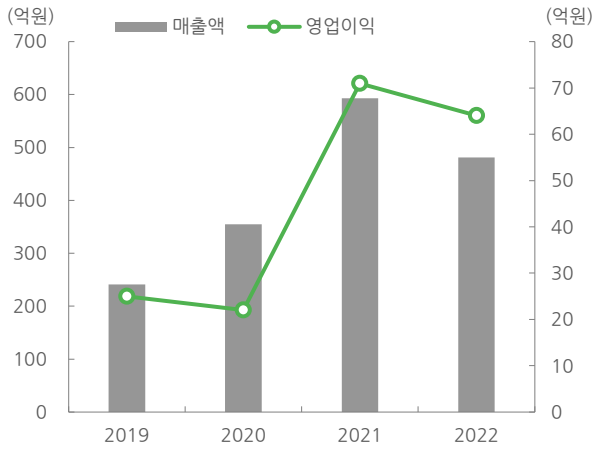
반도체 대전방지 필름 통한 매출 다변화

동사는 이차전지 방염 필름, 차량 경량화 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꾸준히 모색 중에 있으며, 그 중 반도체용 대전방지 필름 사업이 연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용 대전방지 필름이란 반도체 및 PCB 제조과정 중 이송에 사용된다. 기존 대전방지 필름은 PP소재 필름에 대전방지 코팅도료를 코팅해 제조했다면, 동사가 개발한 제품은 PP소재와 대전방지 소재를 결합해 별도 코팅이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제조법을 통해 동사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낮은 불량 발생률, 높은 마모 및 정전기 방지 효과 등의 장점을 가진다. 국내 주요 고객사와 진행 중인 테스트는 순조로운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 생산라인에서 롤만 교체하여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완료 후 빠른 양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매출 본격화 시 전사 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실적 가시성 확대될 시 주가 탄력적 상승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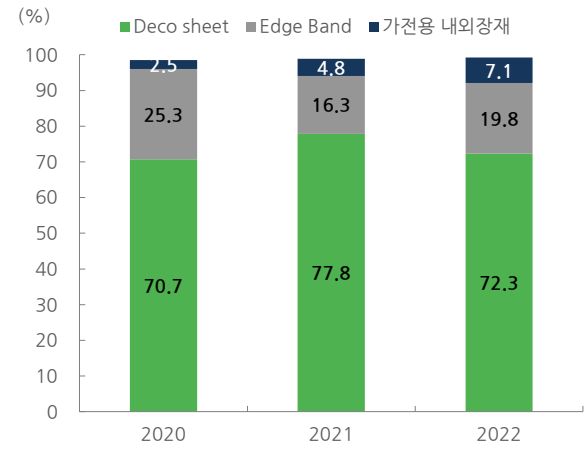
동사는 올해 6월 공모가 5,000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분기 실적이 급감하며 주가도 낙폭 확대, 현재 4,000원대의 주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실적 부진은 중국향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24년은 반도체 대전방지 필름 매출 본격화 전망 속 본업 매출 개선 가시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가 또한 탄력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진영 연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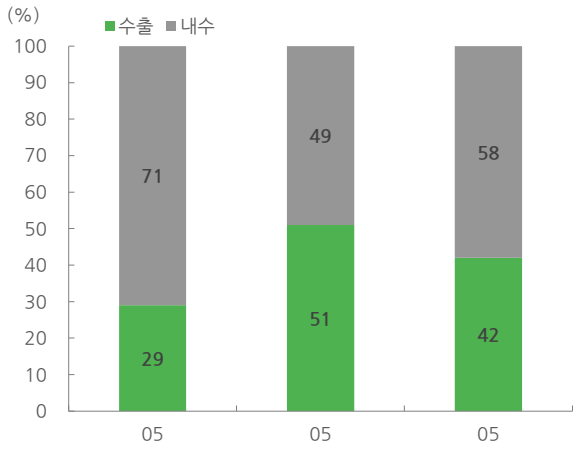
자료: 진영, FS Research

[그림2] 부문별 매출액 비중 추이



자료: 진영, FS Research

[그림3] 수출 및 내수 비중 추이



자료: 진영, FS Research

고지 사항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투자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 당사는 공표일 현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매수, 매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 매수에 따른 손실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